

우마타카조몬칸 캡션

우마타카조몬칸

이 박물관은 나가오카의 유명한 ‘화염 토기’의 파편이 발견된 우마타카·산주이나바 유적에 세워졌습니다. ‘화염 토기 박물관’의 애칭으로 사랑받고 있으며, 이 유적에서 발굴된 토기를 전시, 보관,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관에는 3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1. 유적의 유물을 전시해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
2. 이러한 일본의 중요문화재를 수장하고 보관하는 것.
3. 이 유적의 역사와 그곳에서 발굴된 유물에 관하여 아이들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하는 것.

우마타카·산주이나바 유적

우마타카·산주이나바는 조몬 시대(기원전 15000-기원전 900년)에 시나노 강 왼쪽 기슭에 있던 대규모 마을 터가 발견된 곳입니다.

우마타카 유적은 유적의 동쪽에 있으며, 5500년 전부터 4500년 전인 조몬 시대 중기의 유적입니다. 산주이나바 유적은 유적의 서쪽을 차지하고 있으며, 약 4500년 전부터 3200년 전인 조몬 시대 후기의 유적입니다.

우마타카 유적에는 북쪽과 남쪽에 마을이 있습니다. 북쪽 마을이 먼저 형성되었으며, 이곳에서 최초로 화염 토기가 발견되었습니다. 산주이나바 유적에서는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서서히 인구가 늘어나 대규모 마을로 발전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마타카·산주이나바 유적은 1979년에 모두 국가지정사적이 되었습니다.

중요문화재 화염 토기

이 지역 화염형 토기의 첫 번째 사례는 1936년에 우마타카 유적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토기 윗부분의 장식이 타오르는 불꽃과 닮아 이러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후 고고학자 나카무라 고자부로 씨는 이 토기를 ‘화염형 A 식 1호’로 분류했습니다. 이 토기는 이후 니가타뿐만 아니라 그 외 일본 전국의 조몬 시대 유적지에서도 ‘화염 토기’의 참고가 되었습니다.

우마타카 유적의 화염 토기

이곳에서는 ‘화염형’과 ‘왕관형’ 2 종류의 ‘우마타카 화염 토기’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화염형 토기의 특징은 4 개의 계관 모양 돌기와 테두리 부분의 톱니 모양 돌기입니다. 이와 달리 왕관형은 긴 직사각형 모양 돌기가 있습니다. 깊은 바리 모양 토기가 일반적이지만, 우마타카 유적에서는 얇은 바리 화염형의 희귀한 사례도 출토되고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사례들은 모두 약 5000 년 전 조몬 시대 중기의 유물들입니다.

나га오카의 화염 토기

이것들은 고고학자들이 나га오카에서 발견한 화염형 토기와 왕관형 토기입니다. 나га오카시에는 요이타, 미시마, 도치오 등 조몬 시대(기원전 15000-기원전 900 년) 유적의 발굴 현장이 30 여 곳 이상 있습니다.

화염 토기의 분류

화염 토기는 장식적인 요소에 따라 4 가지로 분류됩니다.

A 그룹: 일반적으로 쉽게 볼 수 있는 불꽃과 왕관 장식이 있는 토기.

B 그룹: 화살표 모양으로 움푹 팬 것이 특징인 토기.

C 그룹: 동북 남부 전역에 공통으로 있는 ‘다이기’ 토기의 영향을 받은 토기.

D 그룹: 표면에 새끼줄 문양(조몬)만 장식된 간단한 형태의 토기. 압도적으로 가장 일반적인 형식의 출토품입니다.

화염 토기의 변천

나га오카 유적에서 볼 수 있는 화염 토기에는 3~4 단계의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히가시야마 구릉에 있는 산 아래 유적의 주민은 이 지역에서 처음으로 화염 토기를 만들었습니다.

초기의 토기는 짧고 통통해 잘록한 부분이 뚜렷하지 않고, 테두리의 세부적인 부분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우마타카 유적이나 이와노하라 유적에서 출토된 후기의 사례에서는 테두리가 바깥쪽으로 크게 펼쳐지며 몸통 부분의 잘록함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조몬 시대 중기, 약 5000 년 전에 화염 토기가 등장한 후 한동안 화염 토기는 인기를 끌었습니다.

화염 토기의 분포

니가타현 내에서는 지금까지 150 곳의 유적에서 화염 토기가 발견되었습니다. 대부분 시나노 강의 중류와 상류(나га오카시, 도카마치시, 쓰난마치)에 집중되어

있지만, 다른 강기슭에서도 유적이 발견되어 일본 서쪽 바다와 사도 섬 주변까지 분포되어 있습니다.

니가타현 서부의 발굴 조사에서는 화염 토기의 사례가 비교적 적은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화염 토기의 용도

화염형과 왕관형 토기를 조사하면 그을음 흔적이 보입니다. 이는 이러한 토기로 요리를 했다는 설을 뒷받침합니다. 요리의 종류에 따라 다른 토기가 사용된 듯합니다. 화염형과 왕관형은 생활에 활용하는 토기 전체의 10% 정도를 차지하므로, 제사와 같은 곳에 쓰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화염형 토기가 장식에 없는 토기와 같은 상태로 발견된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토기를 특정 장소에 두거나 매장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조몬 중기 전반부터 형성된 북쪽 마을

북쪽 마을의 주민 대부분은 수혈(지면에서 수직으로 파낸 구멍)주거였습니다. 저장과 무덤, 공동 쓰레기장의 흔적도 있습니다.

수혈주거의 대부분은 길이 약 8m, 폭 약 4m의 직사각형 구조였지만, 타원형이나 원형 구조로 된 것도 있었습니다.

마을은 중앙의 광장을 에워싸듯이 10여 곳의 수혈주거가 배치된 환상 취락이었으며, 직경은 최대 100m에 달했습니다.

저장 구멍과 무덤

각 마을에는 일반적으로 폭 약 1m, 깊이 약 1.5m의 저장 구멍이 있었습니다. 바닥 면은 최대 저장 용량을 확보하기 위해 넓게 만들어졌습니다.

중앙의 광장 옆에는 매장하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깊이 1~1.5m의 타원형 구멍에 고인을 매장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큰 돌이 장소를 표시하기 위해 세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쓰레기장과 함정

마을 변두리에서는 대량의 토기가 들어 있는 구멍 유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조사한 결과, 해당 구멍은 쓰레기장으로 쓰였으며, 버려진 도구나 부서진 것들이 모여 있었던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길이 약 1.5m, 깊이 약 1m의 수혈이 발견되었으며, 사슴과 같은 야생 동물이나 곰과 같은 대형 포유류를 잡는 함정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마을 서쪽에는 중요한 원천인 작은 개울이 있었습니다.

토우

이러한 여성상은 점토로 만들어졌으며, 접시 모양의 머리 부분과 눈에 띄는 가슴, 배꼽이 특징입니다. 현존하는 샘플 대부분은 몸통만 남아 있으며, 손발은 몸통에서 떨어져 완전한 형태로 발견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우마타카의 조몬인들은 이러한 토우를 의식에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오곡 풍작이나 자손 번영, 순산, 건강을 기원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장식용 구슬과 귀걸이

조몬시대(기원전 15000-기원전 900 년)는 장식용 구슬과 귀걸이를 즐겨 사용했습니다. 특히 비취(옥)는 목걸이 장식품으로 선호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발굴 조사에서는 몇 점밖에 출토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귀중한 물건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컷볼에 직접 끼워 넣는 점토로 만든 귀걸이도 보급되었습니다. 전문가는 이러한 물건들이 장식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의미도 지니고 있었을 것이라 추정합니다.

산주이나바 유적 점토 채굴과 주거

산주이나바의 주거는 대부분 원형으로 디자인되었습니다. 안에는 돌로 만든 이로리 화로가 있으며 중앙에는 토기가 놓여 있습니다.

마을 남쪽에는 길이 6m, 폭 4m, 깊이 3m의 큰 수혈이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양질의 점토를 찾기 위해 이곳의 길흙 아래를 파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토기를 만들기 위한 점토의 원료가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점토 채굴장은 니가타현에서도 귀중한 발견으로 여겨집니다.

산주이나바식 토기의 탄생과 보급

산주이나바식 토기의 명칭은 산주이나바 유적의 출토품에서 유래했습니다. 산주이나바식 토기는 주걱 같은 도구를 사용해 무늬를 넣거나 구멍을 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조몬 시대의 다른 토기와는 달리 흙으로 된 뚜껑도 만들었습니다.

특히 시나노 강·아가노 강 유역 주변에서는 산주이나바 양식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화염 토기와 함께 니가타현의 해당 지역 특유의 선사 시대 문화가 반영되어 있습니다.